

영화문화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처리 공시 개선방안*

이가희** · 송재익*** · 고운성****

〈요 약〉

본 연구는 영화문화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문화산업의 자본의 유입 및 유출되는 규모가 커지며 영화문화산업의 정확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문화산업에 대한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처리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04년에 「영화문화산업 회계처리 기준안」을 제시한 이후 별도의 개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된 기준 내에서의 비교를 위해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를 따르는 국내 상장사 5개의 공시된 회계정보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회계처리를 알아보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안과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처리를 살펴보고 영화문화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투명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는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수익인식 기준, 계정과목의 통일성 부여, 재고자산 인식 기준, 진행률에 따라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많고, 회계전문인력이 부족한 영화문화산업과 같은 특정한 산업군을 위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시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용이하고 통일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영화문화산업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가이드 배포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영화문화산업, 회계투명성,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고, 세 번째 저자의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위지웍스튜디오, gassoong@gmail.com, 주저자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proactivej@gmail.com, 교신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max0907@hufs.ac.kr, 공동저자

I. 서 론

본 연구는 영화문화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문화산업은 1895년 뤼미에르 형제가 최초로 그들의 시네마토그래프를 공개 상연한 것을 하여 불과 약 120여년의 기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팬데믹의 상태가 계속되면서 2020년 한국의 극장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3%가 감소한 5,104억 원을 기록했다.¹⁾ 반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극장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과 관객들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극장에서의 개봉을 거치지 않은 디지털 상영관이 새로운 형태의 영화 콘텐츠의 사용 방식으로 부각되면서 영화 콘텐츠의 중요 유통 방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인하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영화문화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영화산업에 필요한 자본이 유입 및 유출되는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영화문화산업의 투명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업, 투자기관 등의 투자자들 및 이해관계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영화문화산업에 대한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처리를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04년에 『영화문화산업 회계처리 기준안』을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영화문화산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영화산업의 주요 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영화문화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된 기준 내에서의 비교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K-IFRS를 따르는 국내 상장사 5개의 공시된 회계정보를 통한 각각의 회계처리를 알아보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안과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과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시인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화문화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속에서 본 연구는 영화문화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 및 정책개선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차별성 및 공헌성이 매우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 정책연구팀, 2021,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II. 이론적 배경

1. 영화산업의 현황

1999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성장기’는 한국 영화산업이 ‘산업’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총 1500억 원의 국고가 영화진흥채원으로 출연되고 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영화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자본이 풍부해지면서 다양한 시도에 대한 상업적 뒷받침이 이어졌고 그에 따라 새로운 한국영화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일종의 ‘불황기’로 규정지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영화시장의 거품이 깨졌고 상장했던 대부분의 제작사가 손실을 봐야 했다. 한국영화의 투자수익률이 -40%대까지 하락하면서 투자 및 제작의 극심한 부진이 이어졌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일종의 ‘회복기’로 볼 수 있다.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대를 회복했고, 투자수익률도 (+)를 기록했으며 전체 극장매출도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 2015년 이후의 한국 영화산업은 이미 인구 1인당 극장 관람횟수가 4회를 넘었고, 극장매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영화산업은 ‘암흑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극장의 시장 영역 등과 관련한 영상콘텐츠의 이용량과 매출액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문화산업 관련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²⁾

2. 영화산업 회계처리 기준안³⁾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처리는 각 이해관계자에 따라 상이한 면이 존재한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제작사, 판권소유투자회사, 배급대행사, 프로젝트투자회사 및 극장의 중요 회계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시한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의하면 극장 외 시장의 영역으로 TV VOD, 인터넷 VOD, DVD 및 블루레이, 그리고 TV 채널 등을 그 형태로 인식하였다. TV VOD는 셋톱박스 및 디지털케이블을 통해 IPTV나 디지털케이블TV에서 서비스되는 VOD 매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단건구매(Pay Per View, PPV)와 월정액제(Pay Per Month, PPM) 형태가 모두 포함된다. 인터넷 VOD는 OTT 서비스의 영화부문과 웹하드 사이트에서의 VOD 매출을 의미하며, 단건구매(Transaction Video On Demand, TVOD)와 월정액제(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VOD)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TV 채널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 각종 TV 채널 방영권 매출을 의미한다.

3) 영화산업 회계처리 기준안, 영화진흥위원회, 2004.

가. 영화제작사의 회계처리

영화제작사의 수익인식 기준은 영화별로 영화제작사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즉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한 후 완성된 영화의 판권을 판권 소유투자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그 역할을 끝내는 경우와 완성된 영화의 판권을 이용하여 직접 수익·비용 창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한 후 직접 판권소유투자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화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반면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한 후 완성된 영화의 판권을 다른 판권소유투자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그 역할을 끝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익을 인식한다.

- (1) 영화제작사가 판권소유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영화를 제작하고 완성된 영화의 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 (2) 진행율 산정은 영화 순제작비 예산금액 대비 발생원가비율로 산정하되 제작사에 귀속되는 기획료, 경상비 등을 제외한다.
- (3) 진행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권소유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범위 내에서 발생원가 금액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4) 해당 영화에서 이익이 실현되어 영화제작사가 추가적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 판권소유투자회사의 회계처리

판권소유투자회사의 매출은 영화제작 원천에 따라 영화제품매출, 영화상품매출로 구분한다. 또한 매출수익창출 활동의 종류에 따른 매출구분은 극장부금매출, 비디오/DVD판권매출, 공중파/케이블방송매출, 해외판권매출 및 기타판권 매출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판권소유투자회사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면서 지출한 제작비는 재고자산 계정과목인 개발 중인영화 또는 미완성영화로 집계하였다가 영화가 완성된 후 영화제품으로 대체한다.
- (2) 판권소유투자회사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영화제작사에 영화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영화제작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영화제작 완료시점까지 제작선금금으로 계상한 후 영화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영화상품으로 대체한다.
- (3) 판권소유투자회사가 외부의 프로젝트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영화제작선수금 또는 투자예수금으로 하여 부채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재고자산으로 대체된 완성된 영화의 제작비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기간별로 배분하여 매출원가로 대체하도록 한다.

다. 배급대행사의 회계처리

배급대행사가 판권소유투자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영화배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매출액은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이 아닌 판권소유투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부분만을 수익으로 인식 한다. 다만 배급대행사가 해당영화의 배급대행계약과 동시에 프로젝트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그 위험의 정도가 중요하다면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을 매출로 계상할 수 있다. 또한 배급대행사가 극장상영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판권소유투자 회사로부터 극장배급판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판권소유투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라. 프로젝트투자회사의 회계처리

특정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상 받거나, 손실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기로 하는 투자의 경우 이를 투자자산 중 프로젝트투자자로 계상하여 회계 처리한다. 프로젝트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정산 의무가 있는 판권소유투자회사의 정산서를 기준으로 인식하고 프로젝트 투자이익으로 처리한다.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프로젝트투자이익은 판권소유투자회사의 정산서를 근거로 그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여야 한다. 투자원금의 회수 및 이익의 분배가 수 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기대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 회수액 중 기대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투자이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원금의 회수로 한다. 합리적인 기대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투자이익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당 영화에서 투자손실이 예상된다면 판권소유투자회사가 정산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대손충당금 또는 투자손실충당금으로 하여 예상되는 투자손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손실예상금액은 판권소유투자회사로부터 수취한 그 시점까지의 정산서, 향후 추가로 예상되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이용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투자원금의 회수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권소유투자회사의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시점에 프로젝트 투자손실로 한다. 이는 손실이 예상되는 영화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원금의 회수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추정을 하였으나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마. 극장의 회계처리

극장의 수익은 극장에서 해당 영화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판매한 입장권에 해당 하는 회차의 상영이 종료되는 날에 인식하여야 한다. 장래에 상영할 영화에 대한 입장권을 사전 판매한 경우 매출로 계상할 수 없으며 선수금으로 계상한다.

또한 결산시점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배급대행사 또는 판권소유투자회사에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간판 및 포스터 등 광고물 제작비용, 임차료 및 건물 감가상각비 등은 판매비로 처리한다. 그리고, 각종 입장료 할인은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로 하여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휴업체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상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인금액을 매출채권으로 처리한다.

3. 선행연구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유지연(2006)은 음반과 공연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회계처리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니 회계정보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적절한 회계처리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정동진(2012)은 당시 국내 영화산업의 대표적인 6개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서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동진(2020)은 정동진(2012)의 연구에서 지적한 국내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처리 개선방안의 내용이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전 2012년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영화문화산업 해당기업들이 영화에 대하여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회계처리 기준안 계정과목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동진(2020)에서는 연구대상의 기업들 전부 영화에 대하여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서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영화문화산업 해당 기업들은 영화에 대하여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영화와 관련한 매출원가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2004년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공표된 ‘영화문화산업 회계처리 기준안’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본 연구는 2018년 도입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영화문화 사업자의 공시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1단계부터 5단계별로 영화문화산업에서 투자사가 판권을 소유하는 경우의 사례로 대입해볼 경우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영화제작사나 소규모 드라마 제작 외주업체가 이에 해당하며 제작사는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만을 책임지고 이후 해당 콘텐츠의 판권을 투자사에게 이전하고 제작에 대한 대가를 투자사로부터 받는다. 또한 투자사가 수익활동을 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사는 제작사에게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배분한다. 즉, 제작사는 투자

사에게 ‘제작 용역’을 제공한다.

- (1) 1단계는 ‘고객과의 계약 식별’로 각 프로젝트 건 별로 계약을 식별한다.
- (2) 2단계는 ‘수행의무 식별’로 ‘컨텐츠 제작 용역’을 단일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 (3) 3단계는 ‘거래가격 산정’이다. 일반적으로 제작을 위해 투자사로부터 받은 금액인 투자금이 거래가격이지만 영화제작사가 향후 흥행에 따라 투자사로부터 배분 받을 금액인 흥행 배분액이 있다면 이는 변동대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제작사는 투자사로부터 제작 전에 투자금을 수령하고 이는 계약부채인 선수금 등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4) 4단계는 ‘거래가격 배분’으로 단일의 수행의무이므로 해당 수행의무에 모든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 (5) 5단계는 ‘수익의 인식’이다. 제작중인 콘텐츠는 대체용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제작이 완료된 부분까지 청구권이 있다. 또한 영화 또는 드라마가 제작되는 것에 비례하여 판권을 보유한 투자사가 그 결과물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진행률(발생제작비용/총예산제작비용)에 따라 투자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한 발생원가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한다.

Ⅲ. 사례를 통해 살펴본 영화문화산업 회계처리⁴⁾ 및 공시의 문제점

1. CJ ENM

CJ ENM은 방송채널 및 콘텐츠 제작, 광고 등을 영위하는 미디어사업, TV 및 온라인 몰(CJmall)을 통한 상품 판매의 커머스사업, 영화의 제작, 투자, 배급 등의 영화사업, 음반 제작 및 유통, 콘서트 등의 음악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가. 수익 인식

CJ ENM의 영화사업부문에 대한 수익 인식은 제작, 투자 또는 판권을 취득한 영화의 극장 배급과 관련하여 극장 개봉 이후 극장부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비디오 매출의 경우 외부 유통업체에 위탁한 비디오 판매 수량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TV 판권 및 케이블 판권의 경우 판권사용계약 체결 후 판권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판권수출의 경우 판권사용계약 체결 후 판권이 인도되고 판권료가 확정되는 시점에

4) 전자공시시스템 DART상 확인한 2020년 사업보고서 자료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표 1>은 매출유형별로 사업부문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CJ ENM 사업보고서 상에는 사업부문별로 크게 나뉘어져 영화/공연 사업부문으로 영화문화 산업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사항으로 영화제작과 유통, 투자를 통해 매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극장수입과 판권이 주요한 품목임은 알 수 있지만 기준서에 부합하지 않아 제작, 유통, 투자 및 극장수입, 판권 등 각 세부사항에 대한 매출액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1〉 주요 제품의 사업부문

사업부문	매출 유형	주요상표(품목)등
미디어사업	방송채널 tvN/OCN 외 11개 채널 및 방송콘텐츠	광고/수신료 등
커머스사업	취급 수수료 및 직매입 판매 마진	의류, 전자/가구, 미용품 등
영화/공연사업	영화제작/유통/투자	극장수입/판권
음악사업	음반제작/음원유통/매니지먼트	음악/브랜드

나.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

<표 2>, <표 3>은 재고자산 현황과 무형자산의 주식사항이다.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3,297억원이며, 당기 중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4억원을 인식하였고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영화사업부문의 재고자산의 표기의 형태로는 재공품으로 표기하였는데 세부 내역이 개발중인영화 혹은 미완성영화인지를 파악할 수 없고, 현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과정 중에 발생한 비용임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재고자산의 재공품을 기준안에서 제시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완성영화, 미완성영화, 개발 중인 영화로 구분하여 통일된 계정과목을 주식 상에서 나타낼 수 있다면 이용자들에게 더욱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중 영화사업부문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27기
영화사업부문	재공품	882,000
	소계	882,000

무형자산에서는 영화문화산업과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추정되는 산업재산권과 판권, 전속계약금 등이 있지만 5~10년의 짧은 범주 및 계약기간으로 표기되어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추

정 내용연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투자한 프로젝트의 자산이 얼마만큼 상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표 3〉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판권	계약기간 혹은 수익이 실현되는 기간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라이선스	계약기간
기타의무형자산	5~20년
기타의무형자산(전속계약금)	계약기간

다. 부채 및 매출원가

CJ ENM의 기타 금융부채에 관련한 사항인 <표 4>를 보면 투자예수금에 대한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정의 사용이 영화제작과 관련한 사항인지 별도의 주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표 4〉 기타금융부채 사항 중 투자예수금

구 분	계정과목
기타금융부채	위탁예수금
	투자예수금
	미지급비용
	리스부채
	예수보증금
	파생상품부채
	장기미지급금

<표 5>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준안에 따르면 매출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지만 CJ ENM 재무제표 주석사항에서는 이러한 계정과목들에 대한 사용과 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매출원가가 계상된 중요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주석을 통해 세부내역을 꼭 기재해주

어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일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매출	3,391,184,000
매출원가	1,907,373,000
매출총이익	1,483,810,000

2. 쇼박스

쇼박스는 영화 상영 및 영화관 운영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메가박스과, 영화 투자 및 배급 사업을 위주로 하는 쇼박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가. 수익 인식

쇼박스의 영화 관련 수익 인식은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결기업으로서 영화투자 및 배급을 주요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결기업은 선재물과 라이선스의 사용권의 제공, 영화배급서비스의 제공은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여 이행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모든 고객과의 계약에서 본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극장매출의 경우 극장개봉 이후 극장부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TV 및 케이블 등의 부가관련 사용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부가관련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각각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이 실현되었으나 거래처에서 정산되지 아니한 매출액은 거래처 측의 연결기업의 매출추정액과 과거경험치 등을 근거로 추정 인식하고 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 6>에서 볼 수 있는데 쇼박스는 영화상품매출액, 영화배급매출액, 부가관련매출액, 영화투자매출액, 드라마매출액 등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 기준서에 의한 계정으로 매출 구분을 잘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역의 이전시기에 따라서도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인지,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용역인지 잘 구분하여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구 분	수익정보 구분
재화 또는 용역의 유형	영화상품매출액
	영화배급매출액
	부가판권매출액
	영화투자매출액
	드라마매출액
	임대매출액
	기타매출액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용역

나.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

영화의 판권을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주석 상 판권은 ‘국내영화 제작사가 제작완료한 영화에 투입된 제작비와 외국영화 수입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측정되며, 영화 수익이 실현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준서에 의하면 ‘판권소유투자회사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영화제작사에 영화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영화제작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영화제작 완료시점까지 제작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영화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영화상품으로 대체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무형자산 주석사항에서 선급금에서 영화판권으로 대체되었으며, 투자예수금 등으로 대체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기준서를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고자산의 계정과목 역시 완성영화, 미완성영화, 개발 중인 영화로 구분하여 주석 상에서 나타낼 수 있다면 더욱 세분화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기타의 무형자산은 어떠한 자산을 나타내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이러한 부분은 주석을 통해서라도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7〉 무형자산의 현황

구 분	계정과목
무형자산	영화판권
	산업재산권
	기타의무형자산

다. 비용

<표 8>의 비용별 구분에서 제작원가 총액을 나타내고 있다. <표 9>의 연결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 대한 금액이 <표 8>에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영화 제작원가는 물론 마케팅비용 및 제작성과보수와 투자성과보수, 그리고 투자손실부담의 가산 또는 차감이 매출원가에 계상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역시 주석사항에 나타내줄 수 있다면 투자자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표 8> 비용의 성격별 분류

구 분	계정과목
비용의 성격별 분류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제작원가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표 9> 연결손익계산서 일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매출	46,799,000
매출원가	40,156,000
매출총이익	6,643,000
판매비와관리비	8,595,000

3. 위지웍스튜디오

위지웍스튜디오는 cg/vfx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뉴미디어, 공연 및 전시에 이르기까지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가. 수익 인식

수익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1)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VFX 및 뉴미디어 제작, 드라마·예능 제작 및 전시행사 대행 등의 실제로 제공된 용역에 근거하여 인식한다. 이는 예상 총 용역원가 대비 실제 용역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2)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실체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한 투입원가(직접노무원가 및 외주용역원가)가 연결실체의 수행 정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그 진척도에 비례하므로 용역의 수행 정도를 충실히 나타낸다.

(3)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제작한 영화·드라마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OTT 배급권, 드라마 판권 및 OST 로열티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한다.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의 경우 고객이 해당 판권에 대한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결실체는 통제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해당 수익을 인식한다.

‘5. 영업부문 및 수익’에 따르면 <표 10>과 같이 부문을 구분하고 있다. <표 11>을 통해 부문별 수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기준안에 따른 영화문화산업과 관련한 어떠한 회계처리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같은 경우는 위지웍스튜디오처럼 한 회사가 특정하게 한 가지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처리해야 하는 회계처리가 일률적일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문 안에서도 여러가지 영업의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주식사항에 면밀하게 구분지어 나타내주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에게 유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표 10〉 영업부문 및 수익

보고부문	영업의 내용
VFX 및 뉴미디어	영화, 드라마 등의 VFX 및 VR, AR 등 특수 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	방송 드라마, 영화 및 예능프로그램 등의 제작, 방영 및 유통
전시행사 등	스포츠이벤트, 브랜드 캠페인, 컨벤션, 세미나 등을 통한 전시 행사대행 광고대행 및 기타 영상물 제작

〈표 11〉 영업수익의 내용

구 분	영업수익의 내용
주요 지리적 시장	국내
	중국등 해외
수익 인식 시기	한 시점에 이행
	기간에 걸쳐 이행
사업계열	VFX 및 뉴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시행사 등

나. 무형자산 및 재고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추정내용연수는 주석에서 <표 12>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지웍 스튜디오에서는 판권 대신 저작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저작권이 어떠한 내용 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내용연수는 잘 표기해준 반면 전속계약금처럼 2~5년 등의 명확하지 않은 표기로 인해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사업보고서 내 재고자산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연결실체의 재고자산은 드라마와 관련하여 제작에 소요되는 작가료 및 판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표 12〉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저작권	3년, 5년, 8년
산업재산권	5년, 10년
전속계약금	2년~5년
고객관계	8년
수주잔고	8년

<표 13>은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각 주석을 작성하는 담당자의 실무적인 재량이 필요하겠다.

〈표 13〉 연결재무제표 주식 재고자산

구 분	계정과목
재고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다. 비용

재무제표 작성기준에서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으로 ‘연결실체의 수익은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에 영향을 받으며, 연결실체는 계약금액 또는 총발생예정원가의 유의적인 변동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정의 변경으로 반영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표 14>과 같이 프로젝트 별로 진행률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진행률을 산정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표 15>의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듯 매출원가를 별도로 인식하여 계상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판매관리비로서 회계 처리하여 그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개선사항으로는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식으로 보고서에 첨부하는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정보를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매출총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출원가의 올바른 산정이 필수라고 하겠다.

〈표 14〉 프로젝트별 진행률 산정

구 분	계약일	완성기한	진행률
프로젝트A(*)	2018-11-01	2021-06-30	97.9
프로젝트B(*)	2019-04-08	2021-03-25	99.8
프로젝트C	2020-12-03	2021-06-30	22.2
프로젝트D	2020-12-25	2021-12-01	17.0

〈표 15〉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일부 내용

재무제표	구 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일부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손실)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4.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는 영화를 투자·배급하는 영화사업으로 시작하여 드라마 부문, 음악부문, VFX부문 등 8개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가. 수익 인식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2.24 수익인식’ 부분은 하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1) 영화매출은 영화상품매출과 영화배급매출의 경우 극장개봉 이후 극장부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TV판권 및 케이블판권을 제공하고 있고, 라이선스 제공 의무 외에 계약상 고객에게 이전할 다른 재화나 용역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위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에 해당하는데,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TV판권 및 케이블판권의 경우 판권사용계약 체결 후 판권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극장매출은 영화상영매출의 경우 영화의 상영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매출은 상품의 인도시점, 그리고 광고매출은 용역의 제공완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에 대하여 포인트와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 (3) 영화, 드라마, 음원 제작매출은 영화, 드라마, 음원 제작매출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관련 수익의 정산이 확정되는 시점 및 방영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는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 영화매출, 극장매출, 영화, 드라마 음원 제작매출의 구분을 통하여 각 사업 부문별로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영화 매출의 경우, 주석을 통하여 영화문화산업 회계처리 기준안에 부합한 ‘영화상품매출’과 ‘영화배급매출’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점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2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부채’ 주석사항에서 <표 16>과 같이 영화와 관련한 매출액의 표기를 ‘영화 방송콘텐츠부문’ 및 ‘극장부문’ 표기에 한정하여 상세한 구분별 매출액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기간에 걸쳐 인식한 수익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 상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표 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부채 주석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영화방송 콘텐츠	극장	뮤직 콘텐츠	스포츠 콘텐츠	합계
부문 수익	부문간 수익	414,626	—	605	—	415,231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101,983,502	2,870,226	15,648,237	19,698,786	140,200,751
인식 시점	한 시점에 인식	97,922,098	2,669,118	15,648,237	17,397,189	133,636,642
	기간에 걸쳐 인식	4,061,404	201,108	—	2,301,597	6,564,109

나.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고자산은 방영전 드라마저작물, 영화저작물, 및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라마저작물의 경우 방영회차에 맞춰 원가화 되고 있으며, 영화저작물의 경우 개봉시점에 맞춰 원가화되고 있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17>과 같이 재고자산의 내역으로는 저작물과 상품으로 구분 되어있고 기준안에서 제시한 ‘완성영화’, ‘미완성영화’, ‘개발중인영화’ 등의 계정과목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저작물과 상품에 대해서도 드라마와 영화를 구분지어 주석 사항에 나타내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더 파악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표 17〉 재고자산의 내역 일부

구 분	계정과목
재고자산	상품
	저작물

무형자산에 대해서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된다. <표 18>은 무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도 추정 내용연수를 5~10년 등의 넓은 범주로 표기하거나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통합하여 표기하는 등 각기 다른 내용연수 및 기타의 무형자산이 어떠한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무형자산의 가치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표 18〉 무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 내용연수
상표권	10년
콘텐츠유통권	5년
소프트웨어	5년~10년
연결회사는 다음의 재화나 용역을 가진 기간에 걸쳐 이하거나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5년~10년
당기	10년
비경쟁합의	4년
기타의무형자산	1년~5년

다. 비용

매출원가 부분 또한 <표 19>와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로서 ‘28. 비용의 성격별 분류’로 주석에 기재는 되어 있지만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면 판권소유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는 당기영화제작원가에 마케팅(P&A)비용 및 제작성과보수를 가산하고, 투자성과보수 또는 투자손실부담을 가산 또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석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표 19〉 비용의 성격별 분류

구 분	계정과목 등 주석 표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영화투자선급금
	기타 비용

5. 제이콘텐츠리

제이콘텐츠리는 극장 운영, 방송용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가. 수익 인식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영업부문을 방송부문과 영화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사업단위에 따라 드라마 제작 및 납품, 드라마 판권 판매, 영화상영, 기타 콘텐츠 유통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으며 드라마 제작 및 납품, 영화 상영 등의 수행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라이선스(로열티)에 대해서는 연결회사의 콘텐츠 유통사업은 주로 콘텐츠 저작권자와 체결한 콘텐츠 유통대행 계약에 따라 확보한 콘텐츠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콘텐츠 공급이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며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인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이 인식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며 기업의 지적자산을 사용할 권리인 경우에는 해당라이선스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드라마와 관련한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드라마 사업과 IP권리자로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판매, 드라마사업의 협찬광고, 프로그램 유통수익, 영화 투자에 대한 수익 및 드라마 투자에 대한 수익에서 생긴다.

<표 20>과 같이 수익에 대한 내용을 주식 사항에서 살펴보면 기준안에서 제시한 계정과목으로서 완전하게 일치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영화매출’, ‘상품매출’을 통하여 그 분류에 대한 세부사항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방송매출			영화매출	상품매출	합계
		방영권 매출	방송유통 매출	간접광고 매출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59,801	163,618	2,614	130,674	475	356,465
수익 인식 시점	한 시점에 인식	59,081	163,618	2,614	99,854	478	325,646
	기간에 걸쳐 인식	—	—	—	30,819	—	30,819

나.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방영전 드라마저작물, 영화저작물 및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드라마 저작물의 경우 방영회차에 맞춰, 영화저작물의 경우 개봉시점에 맞춰 원가화되고 있다고 나타나

있다. <표 21>은 주식 상에 나타난 재고자산의 내역이다. 기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고자산 항목에 대한 계정으로 ‘개발중인영화’ 또는 ‘미완성영화’로 구분하지 않았고 상품과 저작물에 대한 구분만으로는 현재 제작중인 자산인지 제작이 완료된 자산인지 알기가 어렵기에 그 상세한 내역을 주식에 보고해 주어야 할 것이다.

<표 21> 재고자산의 내역

구 분	계정과목
재고자산	상품
	저작물

무형자산에 드라마제작과 관련된 판권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추정 내용연수 동안 상각된다. 판권을 제외한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표 22>와 같이 추정내용 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된다. <표 23>에서 나타내고 있는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을 보면 고객관계, 브랜드가치, 계약관계, 판권 등의 무형자산이 있음에도 오로지 기타의 무형자산 하나의 계정과목으로만 나타내고 그 추정 내용연수를 4~10년으로 표기하는 것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표 22> 무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 내용연수
기타의 무형자산	4~10년

<표 23> 무형자산 구분

구 분	계정과목
무형자산	회원권
	고객관계
	브랜드가치
	계약관계
	기타의 무형자산
	판권
	영업권
	건설중인 무형자산

다. 비용

<표 24>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영화부금과 드라마제작비에 대한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있다. 영화와 관련한 계정과목을 별도로 사용하여 줌으로써 매출원가에 계상하였으나 이 역시 기준안을 통해 통일된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정리된다면 회계정보 유용성이 증가할 것이다.

〈표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합 계
재고자산의 변동	870,401	—	870,401
종업원급여	14,332,848	46,809,780	61,142,628
감가상각비	299,256	53,209,740	53,508,996
무형자산상각비	44,594,382	5,347,436	49,941,818
지급수수료	—	37,871,724	37,871,724
광고선전비	—	8,408,056	8,408,056
임차료	450,325	17,622,554	18,072,879
영화부금	25,966,440	—	25,966,440
드라마제작비	18,247,378	20,738,774	53,065,118
기타	131,444,333	199,085,518	47,820,934
합계	297,251,332	199,085,518	496,336,850

6. 회계처리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주요사항별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익인식

<표 25>에 요약 제시한 것과 같이 영화산업소속 각 주요 기업들은 기준안에 부합하도록 한 시점에 인식하거나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대하여 회사별로 통일되지 못한 수익 인식기준을 사용하거나 확인이 안 되는 기업도 존재하였다.

〈표 25〉 회계처리 요약 수익인식 기준

구 분	역 할	수익 인식	기준안	비교 결과
CJ ENM	제작, 투자, 배급	한 시점에 인식	역할에 따라 한 시점에 인식 및 기간에 걸쳐 인식	일치
쇼박스	제작, 투자, 배급	한 시점에 인식		일치
위지웍스튜디오	제작 (대행)	기간에 걸쳐 인식		일치
	제작 (판권)	한 시점에 인식		일치
NEW	투자, 배급	기간에 걸쳐 인식		확인 불가
		한 시점에 인식		일치
제이콘텐츠리	유통 (대행)	기간에 걸쳐 인식		일치
	제작, 투자	한 시점에 인식		일치

나. 매출구분(계정과목)

<표 26>에 요약 제시한 것과 같이 영화산업소속 각 주요 기업들은 기준안에 부합하도록 매출구분을 한 기업도 존재하고, 부합하지 않는 기업도 존재하였다. 즉 기업별로 재량적인 매출관련계정과목을 사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회계처리 요약 매출구분(계정과목) 기준

구 분	역 할	매 출	기준안	비교 결과
CJ ENM	제작, 투자, 배급	영화/공연사업 극장수입/판권	영화제품매출 영화상품매출 극장부급매출 비디오/DVD 판권매출 공중파/케이블방송 매출해외 판권매출 기타판권매출	불일치
쇼박스	제작, 투자, 배급	영화상품매출액 영화배급매출액 부가판권매출액 영화투자매출액		일치
위지웍스튜디오	제작 (대행)	VFX 및 뉴미디어		불일치
	제작 (판권)			
NEW	투자, 배급	영화방송콘텐츠 극장		불일치
제이콘텐츠리	유통 (대행)	영화매출 상품매출		일치
	제작, 투자			

다. 재고자산(계정과목)

<표 27>에 요약 제시한 것과 같이 영화산업소속 각 주요 기업들은 기준안에 부합하도록 재고자산을 기재한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화산업 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보다 통일된 회계기준이 적용되어야만 영화산업에 대한 미래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표 27〉 회계처리 요약 재고자산(계정과목) 기준

구 분	역 할	재고자산 (계정과목)	기준안	비교 결과
CJ ENM	제작, 투자, 배급	재공품	미완성영화 개발중인영화	불일치
쇼박스	제작, 투자, 배급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위지웍스튜디오	제작 (대행)	재고자산		불일치
	제작 (판권)			
NEW	투자, 배급	드라마저작물 영화저작물 상품		불일치
제이콘텐츠리	유통 (대행)	상품 저작물		불일치
	제작, 투자			

라. 무형자산(계정과목)

<표 28>에 요약 제시한 것과 같이 영화산업소속 각 주요 기업들은 기준안에 부합하도록 계정과목을 사용한 것으로는 파악이 되나, 영화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등 중요 상세 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28〉 회계처리 요약 무형자산(계정과목) 기준

구 분	역 할	무형자산(계정과목)	기준안	비교 결과
CJ ENM	제작, 투자, 배급	산업재산권 판권 라이선스 전속계약금 기타의 무형자산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충성도	계정과목은 어느정도 일치하나 내용연수의 표기가 명확하지 않고, 기타의 무형자산의 표기가 발견됨.
쇼박스	제작, 투자, 배급	영화판권 산업재산권 기타의 무형자산		
위지웍스튜디오	제작 (대행)	저작권 산업재산권 전속계약금 고객관계		
	제작 (판권)			
NEW	투자, 배급	상표권 콘텐츠유통권 비경쟁합의		
제이콘텐츠리	유통 (대행)	고객관계 브랜드가치 계약관계		
	제작, 투자	기타의 무형자산 판권 등		

마. 비용 및 매출원가

<표 29>에 요약 제시한 것과 같이 영화산업소속 각 주요 기업들은 기준안에 부합하지 않도록 비용 및 매출원가에 대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화산업의 불투명한 비용 및 매출원가 인식은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수익 및 자산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와 더불어 비용 인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표 29〉 회계처리 요약 비용 및 매출원가 기준

구 분	역 할	비용 및 매출원가	기준안	비교 결과
CJ ENM	제작, 투자, 배급	확인 불가	당기영화제작원가에 마케팅(P&A)비용 및 제작성과보수를 가산 투자성과보수 또는 투자손실부담을 가산 또는 차감	확인 불가
쇼박스	제작, 투자, 배급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불일치
위지웍스튜디오	제작 (대행)	판매관리비		불일치
	제작 (판권)			
NEW	투자, 배급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불일치
제이콘텐트리	유통 (대행)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화부금, 드라마제작비)		불일치
	제작, 투자			

IV. 영화산업 회계처리 및 공시의 개선방안

1. 영화산업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첫째, 수익인식 기준에 따른 정확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영화제작사의 수익인식 기준을 영화제작사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제안한다. 즉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한 후 완성된 영화의 판권을 판권소유투자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그 역할을 끝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지, 완성된 영화의 판권을 이용하여 직접 수익·비용 창출 활동을 함으로써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지 구분하여야 한다.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할 수익을 한 시점에 인식할 경우, 앞선 년도에 발생하는 원가 및 비용을 왜곡하게 되고 이는 곧 손익이 왜곡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의 공정을 수행할 경우 손익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 기준 처리방식으로 회계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선은 영화문화산업들의 올바른 수익인식 기준을 따른 회계처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화문화산업의 계정과목에 통일성이 필요하다. 영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화산업의 구조 및 각각의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고려해야하는 회계 및 세부사항이 다르므로 그 역할에 따라 적

정하게 적용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계정과목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IFRS는 회계처리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긴 하지만 현행 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통일된 기준안을 배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영화문화산업에 있어 재무적 정보를 파악할 때에 통일성 있는 계정과목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다면 투자자들과 외부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여줄 수 있다. 이에 영화문화산업의 계정과목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영화제작사의 성격이 일반 제조업과는 크게 다르므로 일반 제조업이 사용하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과 같은 계정과목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재고자산의 항목을 영화제작의 성격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제조업이 사용하는 계정과목에 억지로 맞추어 구분하는 경우 그 구분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영화문화산업의 고유한 계정과목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형자산에 있어서는 분류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 내용연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신뢰성 있는 매출원가와 합리적인 근거로 진행률 산출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되어 한다.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기업의 매출총이익이 과대하게 부풀려지거나 과소하게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처리 특성상 추정을 통하여 수치를 예상하고 그 수치를 계정과목에 적용해야 하는 문제이다.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완성된 영화의 제작비는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기간별로 배분하여 매출원가로 대체하도록 한다. 매출원가와 진행률을 계상하는 데 있어 신뢰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투명한 회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영화산업 공시의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 IFRS는 자율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를 따르는 기업은 각기의 양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업간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이에 재무제표 이용자와 투자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의 유관기관에서 각 산업군별로 공시 작성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러한 기준점이 만들어진다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무자인 내부정보이용자부터 투자자와 같은 외부정보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고 용이하게 정보를 작성하고 통일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산업군 별 많은 재무적, 회계적 전문가들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내용을 작성하고 분류한 후 최 대한 효율적이고 간결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싶을 수 있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

보를 알기 원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분석한 후 결정을 할 것이기에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입장에서 정보를 공시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명확하게 제공된 내용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각 사업체별로 공시담당자들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가이드 배포와 교육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회계처리를 하고 주석을 작성하고 또 그 자료를 공시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너무 축소되거나 과대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실무담당자들에게 공시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분명 공시의 양과 질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영화문화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투명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화문화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중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극장에 접근이 제한된 제약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내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문화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문화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투명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4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정한 영화산업 회계처리 기준안과 선행연구를 확인해보며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국내의 영화관련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영화문화산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2004년 이후 기준안에 대한 개정 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선행연구 사례도 많지 않기에 현시점에 부합하는 기준안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각 기업의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들이 양질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들에게 기준안 배포와 교육 등도 제공된다면 회계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문화산업에서는 산업 고유의 기준안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의 투명성도 개선되고 재무적 정보를 알기 원하고 꼭 필요한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영화문화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대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및 영화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해서 폭넓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대성삼경회계법인. 2020. 「(주)제이콘텐트리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0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삼일회계법인. 2020. 「CJ ENM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삼일회계법인. 2020.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삼정회계법인. 2020. 「위지윅스튜디오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영화진흥위원회. 2004. 「영화산업 회계처리 기준안」.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2016. 「I은행 문화 콘텐츠 투자 금액」.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2021.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 유지연. 2006. “문화산업의 회계기준 연구, -영화산업, 음반 산업, 공연산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진. 2012. “영화 산업의 회계처리 현황과 개선방안(사례연구 국내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진 · 김아림. 2020. “영화문화산업의 회계처리 현황과 개선방안 : 국내 영화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20권 제2호 : 1-9.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8. 영상, 공연, 음반 분야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 한국상장회사협의. 2015. 「K-IFRS 1115호 수익기준서 해설1」. 상장.
- 한영회계법인. 2020. 「쇼박스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the Film Culture Industry Measures to Improve Accounting Disclosure

Ga-hee Lee* · Jae Ick Song** · Yunsung Ko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asure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for protecting investors in the film culture industry. As the scale of capital inflow and outflow of the film culture industry increases, the number of investors and stakeholders who require accurate accounting information for the film culture industry has been increasing.

However, a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related research for the film culture industry is highly lacking and since The Korean Film Council develope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Film and Culture Industry」 in 2004. There has been no further revisions mad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disclosed accounting information of 5 domestic listed companies that comply with the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and investigated each accounting treatment. It was also compared to the accounting treatment standard propos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The accounting treatment of the film culture industry was reviewed, and the measure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for protecting investors in the film culture industry were suggested.

The way of achieving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revise the accounting treatment standard for the film culture industry and implement correct accounting, such as revenue recognition, uniformity of account items, inventory recognition standards, and cost of sales according to the progres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ffer accounting guidelines for the specific industries such as the film culture industry in which there are many small businesses and lack of professional accounting manpower.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disclosure, it is requisite to find a way to provide ease and consistent information for the external information users. Furthermore, a distribution of guidelines an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and steadily for professional practitioners in charge of writing financial statements in the film culture industry companies.

〈Key words〉 Film and Culture Industry, Accounting Transparency, Accounting Guidelines

* Master, HUFs Business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assoong@gmail.com, First Author

** Ph.D. student, Business School, Dongguk University, proactivej@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HUFs Business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x0907@hufs.ac.kr,
Co-author